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10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(2110-5109), 박달 사무관(2110-5380)

국회·정부·전문가 함께 모여 U턴기업지원법 논의

- 5.9(목)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정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2013.5.9(목)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음.

○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전정희 민주당 의원과 산업부의 김재홍 제1차관 외에도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,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, 오영식 민주당 의원과 산업계, 금융계,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가 참가

□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의 활로로써 U턴 활성화와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, 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

○ U턴기업과 인근 대학,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,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U턴기업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.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, 이하 **산업부**)는 전정희 의원실(민주당, 전북 익산을)과 공동으로 2013.5.9(목)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코트라 주관으로 개최하였음.

○ 이날 입법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전정희 의원과 산업부의 김재홍 제1차관 외에도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,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, 오영식 민주당 의원과 산업계, 금융계,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여 U턴기업지원의 중요성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함.

□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가 작년 11월 제출한 U턴기업지원법 정부안과 전정희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을 검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

○ 정부안에서는 U턴의 개념 정립, U턴기업 선정제도의 운영, U턴기업에 대한 조세, 현금, 입지,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 및 U턴기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주요 내용하고 있으며,

○ 의원입법안은 정부안을 기반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등 U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□ 이날 참석자 들은 U턴기업지원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다 같이 공감하고 효과적 U턴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

○ 부산 신발기업의 U턴추진 사례, 삼정 KPMG의 한중 비용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 U턴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

○ U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전북 익산의 주얼리 기업의 경우처럼 해외진출 기업의 동반복귀를 활성화하고 U턴기업과 인근 대학,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됨

○ 또한 U턴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육성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보다는 중소·중견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

□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전정희 의원은 "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의 U턴은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"이라고 입을 모으고 "국회와 정부는 이번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박 달 사무관(☎ 02-2110-53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개요

1. 개 요

□ **목적** :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된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을 모색

□ **주최/주관** : 산업통상자원부, 전정희 의원실 공동 주최/코트라 주관

□ **일시/장소** : '13.5.9(목) 15:00 /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

□ **참석자** : 산업위 강창일 위원장, 여상규 의원, 오영식 의원, 전정희 의원,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

- 패널 전문가(5), 사회 : 장현국 삼정 KPMG 이사, 이정기 한국신발산업협회 상근부회장,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,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,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,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(사회)

2.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5:00~15:25	개회사	전정희 의원
	환영사	김재홍 산업부 차관
	축사	강창일 위원장 여상규 의원 오영식 의원
15:25~15:55	정부입법안 발표	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
	의원입법안 발표	전정희 의원
16:00~17:00	패널 토의 - 해외진출기업의 U턴수요 현황 (장현국 삼정KPMG 이사) - 해외진출기업의 U턴추진 사례 (이정기 한국신발산업협회 상근부회장) - U턴기업지원 법제화의 타당성 검토 (김범준 단국대 교수) -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U턴 지원제도 방향 (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) - 산업입지적 측면에서 본 U턴 지원제도 방향 (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)	사회 : 이성봉 교수
17:00~17:30	토론 및 질의응답	

참고 2 주요 토론 내용

□ 해외진출기업의 U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중이며 국내 경제에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측(장현국 삼정 KPMG 이사)

○ 韓中간 비용분석 결과 중국진출 기업중 전자 등 5개 업종이 U턴에 유망한 것으로 분석

○ 5개 U턴 유망 업종이 10%만 U턴하여도 향우 5년간 5.9만개의 고용창출과 매년 5.2조의 GDP 증가가 예상됨

□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신발산업이 U턴을 준비하는 등 실제 U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(이정기 한국신발산업 협회 상근 부회장)

○ 90년대 초부터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, 인도네시아 등지에 생산기지를 이전

○ 그러나 최근 아시아 주요 투자지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, FTA 체결 등으로 인해 U턴 수요가 증가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

□ U턴기업 지원제도 특성과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U턴기업지원법의 제정이 필요(김범준 단국대 교수)

○ U턴기업지원제도가 국세청, 관세청, 고용부 등 다양한 부처기관에 산재해 있어 법 제정을 통해 통일적체계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

□ 효과적인 U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·중견기업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(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)

○ U턴기업지원법이 조세·현금·인력·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특히 고용보조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U턴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

○ 다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U턴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,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중소·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

○ 또한 현금지원의 경우 U턴기업의 특성을 고려,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

□ 동반복귀기업이 지역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(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)

○ 동반복귀기업이 국내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

○ 다만, 지구·특구 등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의 대학,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

참고 3 해외진출기업의 동반복귀 사례

□ 익산 주얼리 기업 20개사

○ '12.8월 1차 U턴 기업 14개사와 전북 익산 간 MOU 체결

* '12.12월 14개사 중 1개사에 대해 입지 보조금 30억원(국비기준)을 지원

< 단계별 투자계획 >

차수	U턴 시기	업체수	고용인원(명)	투자금액(억원)
1단계	'12년~'13년	20	7,000	1,030
2단계	'14년~'15년	30	11,000	2,000
3단계	'16년~'17년	300	100,000	5,000
합계		350	118,000	8,030

○ 2.26일 스와로브스키SP코리아(크리스탈제조)와 주얼리 U턴 기업간 원·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MOU 체결

○ '13.5월 현재 20개사가 익산시와 부지매입 계약 체결(48천평)하였고, 금년 6월에 공장을 착공* 후, 연말부터 생산예정

* 제품시험,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공동 R&D센터(국비 117억원)도 동시에 착공

□ 부산 신발 기업 5개사

○ 신발 U턴 기업 5개사 중 3개사는 부산시 신발집적화단지* 입주가 결정되었으며, 나머지 2개사는 입주 부지 물색 중

* 부산시가 부산지역을 세계적인 신발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이며, U턴 기업 등 신발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소재-부품-완제업체의 클러스터 형성 추진

< 집적화 단지 조성 계획(안) >

부 지	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(부산진해FEZ 내 위치) ※ 현재 부지 조성단계로 '14년 하반기부터 토지사용 가능
면 적	32,000평

○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지역에 신발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승인 요청('13.2.15)을 하였으며, 경자청에서 계획 변경 진행 중

○ 부산시, 신발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신발 업체 중 U턴 의향 기업 추가 발굴 추진